

念珠



念珠與佛教同時傳入至日本、隨著佛教的盛行發展出與佛教傳入時不同的念珠——日本獨自的念珠——延續至今。念珠於佛教界中必備的道具、依各宗派、僧侶、家中祭拜等使用狀況而有不同的珠子形狀、數量等、皆依循傳統規定。

製作：京都市

수주



수주·염주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일본으로 전래되었으며 불교의 융성과 함께 발전하고 또한 불교가 전래되었을 무렵과는 다른 일본 독자적인 수주도 고안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수주는 불교계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며 각종파, 승려, 재가 등의 차이에 따라 형태나 구슬수가 다르며 각각 전통적인 규칙이 있다.

교토시 제작

佛珠



佛珠、念珠随佛教同时传入日本、在佛教兴盛的同时得到发展。此外、日本也发明了与佛教传入时不同的具有日本自己特色的佛珠、并传承至今。佛珠在佛教界是必不可少的用具、根据各个宗派、僧侣、在家信徒等的差异、佛珠的形状、珠数也有所不同、分别有各自的传统规定。

制作：京都市

Juzu (Buddhist beads)



Juzu beads and nenju prayer beads came to Japan and developed together with Buddhism, and prayer beads unique to Japan came to be made subsequently and are still made to this day. Juzu beads are a necessary item in the Buddhist world, and there are traditional rules regarding their shape and the number of beads in a set that depend on the sect and whether the user is a priest or a layperson.

Produced by City of Kyoto